

지역 정치권 공천경쟁 본격화... 컷오프 명단 '촉각'

민주, 238개 지역구 후보 심사 등 경선 준비 야권, 3세력 통합 국면전환 지지기반 다지기

지역 정치권의 공천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입후보자들이 컷오프 명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검토대상인 전략지역 15곳을 뺀 238곳 지역구에 대한 후보 공모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28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내달 10일까지 서류·면접 심사를 한다. 이어 20일께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을 추리고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 경선은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된다.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치열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명절 전후로 지역구별로 후보자간 우위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심사를 앞두고 단일화와 전략공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컷오프 명단 후보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컷오프는 당선 가능성, 당적 변경 이력,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자체 분석에서 후보자간 격차가 20%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컷오프되고 경선에도 나설 수 없는 만큼 후보자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분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구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전략공천 가

능성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무소속현역의원들도 지역구에 상주하며 지지기반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열세라는 결과를 받은 야당 현역의원들은 중도세력의 결집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을 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민중당 등 진보정당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은 경선 구도가 어느 정도 짜인 만큼 후보심사를 앞두고 단일화·전략공천 등에 대비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며 "야권은 열세를 만회하려 제3세력 통합으로 국면전환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레이다

최영호 "우한폐렴 확산방지 적극 대처해야"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는 27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하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우한폐렴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정부와 지자체, 의료

기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접촉력 있는 호흡기 의심환자의 자진신고 등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로 우한폐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세기 수송 등 교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다"며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양향자, 민주당 총선 후보자 공모 등록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중앙당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모에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8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최근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서구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했다"며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 등 확실한 검증된 자격으로 주민들께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주철현 "여수항 해상환적물류 거점항 육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호 공약으로 해상환적 물류산업 최적지인 여수항을 국내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 선박 대형화 및 미국 세일가스 상용화로 향후 중국·일본·한국의 수요량이 20% 정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주 예비후보는 "최근 울산과 거제가 해상유류 환적거점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어 여수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김명진 "지식복지도시 서구 만들겠다"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서구를 지식복지도시로 만들겠다"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식복지도시는 물질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의 행복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며 "상무소각장 부지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광주대표도서관과 국회원 도서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구 주민들의 정보접근성과 지적육구 증진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로당에도 실버도서관을 설치해 어르신들께 독서를 통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주민이 동네 서점에



이석형,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공약 발표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27일 "송정역세권 개발과 군공항 이전 등 광산지역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우선 과제 빅3 세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금호타이어 공장 이

전 공론화되고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대체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송정역세권 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대체부지 선정은 지역정치권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군공항 이전지역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전 기간은 15년 이상 소요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국회에 입성하면 군공항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광산구



정기명 "여수시민 지역발전 열망 이루겠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장충남 화양면지 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으로서 후원회장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

록되는 단체다.

장충남 후원회장은 "정기명 후보는 법률서비스 불모지였던 여수에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소 이후 20년 동안 지역민 결을 지켜왔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한 정 후보야말로 지금 여수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다"며 "이런 후보가 국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김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 신제품 출시 ★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겐공,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된 체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4월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상담실 080-80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